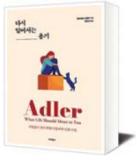


새 책

▶다시 일어서는 옹기(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유진상 옮김)=개인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저자는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며,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옹기와 삶의 과정에 맞추어 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직시할 옹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의 기대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옹기와 실패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옹기를 권한다. 스타북스, 1만8000원.



▶꽃과 운명(차벽 지음)=꽃을 사랑한 조선 선비 100인이 남긴 글과 현장을 찾아 사색하며 쓴 책이다. 그들이 어떤 곳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떤 운명으로 살았는가는 물론 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낸 내용이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아무 곳이나 펼치면 꽃이 반기고 그들의 삶이 감동으로 다가오며 자신이 보인다"고 했다. 회고회고, 2만6000원.



▶초등학교 생활의 모든 것(김지나 지음)=“우리 아이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의 친구 관계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 거지?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초등 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25년차 현직 교사인 저자는 초등 부모를 위해 공부방법, 학교생활, 생활습관, 친구관계 등 네가지 파트로 나눠 80가지의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북하우스, 1만8000원.



▶정의의 길, 역사의 길(김삼용 지음)=저자는 누구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정의의 길로 가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책은 정의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인지를 청소년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다. 특히 역사의 교훈에 귀 기울이면서 개인이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산다면 사회도 정의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철수와영희, 1만2000원.



▶녹색평론(녹색평론 편집부)=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미래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녹색평론 2021년 3-4월호는 그 답을 “농본주의”로 제시한다. 우리의 농민·농촌·농업의 현실을 짚고,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생태적 위기 그리고 피크오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가치관과 방법적인 원리로서 농(農)의 복원을 주장한다. 녹색평론사, 1만2000원.



▶눈보라(강경수 지음)=책은 북극곰 '눈보라'의 여정을 통해 전례없는 기상 이변이 만든 기후 난민의 현실과 그들을 쉽게 외면해 버리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비추어 보인다. 작가는 눈보라의 이야기로 지금의 위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 창비, 1만4000원. 오온지기자 ejoh@ihalla.com



언어생활의 기초 체력 탄탄히 키우려면

국어 교과서 집필 이도영 교수의 '언어력'

차별어·프레임 씌우기 벗고 언어에 알맹이 담는 법 제시

“신어의 목적이 사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곤 알고 있나? 결국 우리는 사상죄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그걸 표현할 말이 없어질 테니까. 필요한 개념은 단 한 마디 말로 표현되며 그 말은 정확히 정의되어 다른 결맞음은 없어져 버리고 말지.” 1984년을 배경으로 빅 브라더를 등장시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려 낸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한 대목이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소설처럼 특정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단어가 의미했던 개념도 사라져버린다. 언어는 사고를 감고둬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구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국어 교과서 집필자인 이도영 추천교과 교수의 '언어력'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길잡이다. 국어학 원칙에 충실하되 쉬운 문장으로 우리의 언어생활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쓰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력은 '언어의 힘을 알고 언어에 힘쓰는 언어의 일꾼'을 의미한다. 저자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언어 사용의 '삼다'를 바탕으로 언어력의 기초인 듣기의 중요성, 문맥적 의미 파악, 모호한 말의 해석, 선택과 배제, 새로운 대상에 이름 붙이기 등을 다뤘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한창 혼란스러운 시기에 방역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특정 지역을 '봉쇄'한다는 말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표준 국어 대전전에 따르면 '봉쇄'는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이란 뜻이다. 봉쇄가 방역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 하더라도 인종들의 언어 감각에서는 낙인을 찍는 부정적 영향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가 제시하는 언어력의 여러 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프레임 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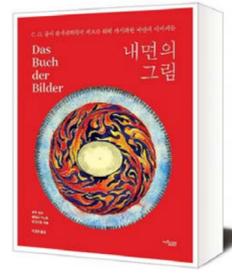
우기'나 '차별어'와 같은 언어의 민낯을 만나게 된다. 통찰 없이 습관처럼 사용했던 자신의 언어에 알맹이를 채우는 법도 알 수 있다. 언어 사용은 타인을 지향한다. 또한 당대의 문화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국어를 잘한다는 개념에는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에 대한 이해력과 문화 창출 능력이 포함된다. '해석의 다양성을 견디고 맥락과 상황, 타인을 고려하는 것은 언어력의 기본'이라는 저자는 인공지능은 흉내낼 수 없는 언어력의 힘을 강조했다. 창비, 1만4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모호하게 떠다니는 무의식의 상상 붙잡다

웅 연구소 아카이브 담은 '내면의 그림'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C. G. 융(1875~1961), 1930년대에 융은 한 네덜란드 여성을 치료했다. 융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여성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며 안도감을 얻었다. 이 사례가 소개된 책에서 융은 "그림은 모호하게 떠다니는 무의식적 상상들의 공통점을 찾아 어느 정도 그것들을 일치시키고 이로써 고정시킨다"며 "이 방법의 치료적인 효과는 의식이 무의식과 함께 작업하도록 하여,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시키는데 있다"고 적었다. 이 대목에서 융은 그림을 이용한 치료적 이해의 기초를 말하고 있다. 루트 암만, 베레나 카스트, 잉그리트 리멜이 공저한 '내면의 그림'에 융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가시화한 그같은 이미지들이 담겼다. 1948

년 4월 설립된 스위스 취리히 웅 연구소의 그림 아카이브를 통해 분석심리학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융은 1917년 무렵부터 그의 환자들이 그들의 꿈과 상상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도록 격려했다. 융의 동료 중 한 사람으로 자신도 그림을 이용한 작업에 몰두했던 올란데 야코비는 그때부터 1955년까지 융의 환자들이 그린 그림 약 4500점을 수집해 웅 연구소의 아카이브에 보관해왔다. 연구소는 설립 70주년인 2018년 그 그림들을 공개했다. 대중들은 융이 어떻게 내면의 그림들을 치료의 형태로 발전시켰고, 그 방법은 어떻게 응용되었는가에 관심이 컸다. '내면의 그림'은 그중 일부를 골라 섬뜩한 것, 만다라, 성과 육체, 혼돈과 파괴, 인간적인 것 그리고



비인간적인 것 등 주제별로 나눠 융 학파 심리분석가, 미술사가 등이 그에 상응하는 글을 덧붙였다. 융 스스로는 그의 환자들이 대한 체계적인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 환자들도 일부만 그림에 단상을 적어 놓았다. 그 때문에 그림을 그린 이들이 어떤 사연을 안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그것들은 색과 형태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한다. 박경희 옮김, 뮤진트리, 3만원. 진선희기자

이 책 이지훈의 '행복한 나라 8가지 비밀' "일단 멈추고 '성장 중독' 돌아볼 때"

그는 2017년 비슷한 시기에 '버킷 리스트'에 있던 코스타리카와 부탄을 방문했다. 중미의 코스타리카는 1984년에 이미 비무장 국가 선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고, 부탄은 20여 년 전에 관광객을 일정 수 이내로 통제하는 히말라야 왕국이 있다는 절박한 기사를 보고 마음에 둔 터였다. 우연의 일치인지 두 나라 모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졌다. 그는 거기에 또 다른 행복한 나라로 여겨지는 북유럽 국가를 꼭꼭점으로 셋을 연결해봤다. 그랬더니 삼각형 형태를 띠었다. 인종적·지리적·역사적·사회경제적 조건과 배경이 각기 다르고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이 왜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것일까. 그가 이런 궁금증을 안고 그동안 공부하고 탐색한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제주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 행정시인 제주시장을 지낸 이지훈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설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장이 쓴 '행복한 나라 8가지 비밀'이다. 그에 따르면 행복한 나라의 8가지 공통점 중 첫 번째는 평등이었다. 그들은 심각한 계급 분열과 경제 불평등 없이,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 왔다. 그다음으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적 유대감, 관용과 포용, 무상의료, 무상교육,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신뢰받는 정부와 좋은 지도자, 평화와 국교(國敎)를 꼽았다.



2017년 저자가 '티베트블로그의 나라' 부탄 여행에서 촬영한 탁상사진.

저자가 이들 나라의 '행복한 비밀'에 눈길을 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해법을 찾으려면 일단 멈춰야 한다고 했다. GDP만 올라가면, 대규모 개발만 하면, 관광객만 많이 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지 않았는지 들여다보자고 했다. 과거를 성찰하며 '돌아보기', '둘러보기', '내다보기'를 해야 한다고 밝힌 그는 "헬조선에서 행복 대한민국이 되려면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민행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울, 2만6000원. 진선희기자



그에 따르면 행복한 나라의 8가지 공통점 중 첫 번째는 평등이었다. 그들은 심각한 계급 분열과 경제 불평등 없이, 질투를 유발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 왔다. 그다음으로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적 유대감, 관용과 포용, 무상의료, 무상교육,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신뢰받는 정부와 좋은 지도자, 평화와 국교(國敎)를 꼽았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특허받은 바림판 토출구로 인해 사각지대 최소화

-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 고풍압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